



부족하다. 물류시설부터 풍력발전 및 원자력 시설까지 모든 것이 형식적인 절차와 끝없는 지역 규제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의 발전을 끄떡할 정도로 느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의 건설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킨다.

영국의 경제 성장이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런던의 지방 당국으로부터 단순히 재량권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일부는 이런 방법이 지역 평준화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공공 투자가 필요한 지역에 지출을 늘리는 것도 생산적으로 성장하는 경제 하에 가능하다.

조세 제도의 개편 외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 수를 확장해 인재들을 영국으로 영입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또한 영국 시스템의 큰 약점 중 하나는 학생들이 특정 교과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흥미를 찾도록 하는 교육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 아래선 많은 학생이 16 살에 수학과 과학을 포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대학에서 해당 과목을 공부하거나 관련 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트러스 총리는 교육부 장관 시절, 수학을 공부하는 청소년의 수를 늘리기 위해 핵심 교과 과정에서 수학 과목의 이수 조건을 바꾸기도 했다. 이제는 그보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영국은 16 세 이후의 교육을 확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 수학과 과학을 18 세까지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하면, 이러한 조치들은 2030 년까지 GDP 의 5%를 연구개발에 지출하도록 하는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할 것이다. 그제야 영국은 정말로 '일하는, 건설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 조소희

출처: <https://capx.co/a-massive-uplift-in-rd-is-vital-to-getting-britain-working-building-and-growing/>